

# 클래식과 불교창작곡의 만남

## 니르바나실내악단 27일 정기연주회

동양 정신의 마르지 않는 샘인 불교사상을 서양악기의 현으로 퍼올리는 무대가 준비된다. 이는 전통과 미래를 잇는 새로운 세기 문화의 화두인 퓨전(fusion)의 음악적 시도이기도 하다.

불교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 창작음악 개척과 실내악의 대중화를 모색해 온 니르바나 실내악단이 제2회 정기연주회를 27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다.

니르바나실내악단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를 전공한 불자연주자들이 모여 지난해 2월 창립한 교계 최초의 실내악단이다. 불교 전통에 바탕을 둔 창작곡을 포함, 서양 고전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을 소화해 내며, 그동안 창립음악회와 산사음악회 등에서 수준높은 음악을 연주해 왔다.

이번 정기연주회도 서양 고전음악과 현대 불교 창작음악을 선보여, 불자들에게는 고전음악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불교 창작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주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대사이자 중견 바이올리니스트인 폴 칼슨씨를 초청, 특별 연주도 선보인다.

니르바나실내악단은 제1부에서 로시니의 '현을 위한 소나타 제3번'을 연주하고, 폴 칼슨과 바이올리니스트 유정미씨(니르바나 실내악단 단원)가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협연한다.

제2부에서는 불교의 전통의식인 예불 의례를 음악적으로 재구성한 정부기교수(중앙대)의 관현악을 위한 '예불'이 초연된다. 사물놀이와 판소리 등 우리나라 전통음악 양식과 서양음악의 실내악적 요소까지 겸비한 이 곡은 신비로운 음향과 출세간(出世間)적 정서로 청중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또 동아콩쿨 등에서 활동해 온 젊은 불자작곡가 최명훈씨의 '찬불가를 모티브로 한 메들리 연주곡'도 선보일 예정이다.

단장 강형진씨는 "성악과 합창 위주로만



○니르바나실내악단은 창작불교음악과 전통고전음악을 한무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발견돼 온 불교음악계에 기악중심의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고, 불교적 마인드를 담은 수준높은 연주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실내악단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이번 공연을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활동을 외국에까지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02)3663-4663 이은자 기자 (ejele@buddhapia.com)

## 우표속 정보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봉정사극락전

팔만대장경,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 봉정사 극락전 등 불교문화유산을 담은 우표가 제작된다.

이 우표들은 정보통신부 우표디자인실이 새 천년을 맞아 기획 제작한 밀레니엄 시리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선사시대부터 8·15광복 이후에 이르는 유물과 유적, 사건과 인물을 시대별 11개의 묶음으로 나눠 선보이는 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유물로 선정된 것이다.

우표디자인실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묶음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을 시작으로, 두 번째 묶음 삼국~통일신라시대 유물과 유적, 세 번째 묶음 고조선~통일신라시대 사건과 인물 등을 이미 발행했다. 팔만대장경과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는 오는 3월 2일 네 번째 묶음인 고려시대 사건과 인물에서 선보이게 된다. 이 네 번째 묶음에는 과거제도, 안향, 문익점, 목화씨 전래 등도 포함된다.

팔만대장경 우표는 사진작가 주명덕씨가 수년전 해인사에서 찍은 스님이 인경(印經)하는 모습을 기본 모델로 뒷부분에 경관이 배경으로 오버랩 되고, 그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됐다. 사진속 모델은 당시 해인사에 주석했던 지현스님(현 송광사 율원장)이다.

우표디자인실 이해욱장은 "팔만대장경이 지니는 현대적 가치와 불교적 이미지를 표현해 내기 위



○밀레니엄 시리즈 중 팔만대장경.



○밀레니엄시리즈 중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

해 다각도로 고민했다"면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스님이 인경하는 사진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 팔만대장경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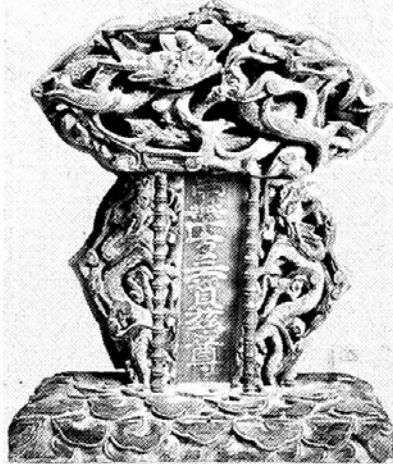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 우표는 <직지심체요절>의 첫부분을 바탕으로 그 위에 입체형의 금속활자본을 얹어 놓은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봉정사 극락전은 일곱 번째 묶음 고려~조선전기의 유물과 유적에서 고려청자, 하회탈, 경복궁, 봉유도원도, 조선의 과학기 등과 함께 발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98년 세계문화유산등록 당시 특별우표로 해인사 장경각과 경관의 모습을 담은 2종의 우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은자 기자

## 龍 전시회 2곳

호림박물관 '용의 미학전'

경기도박물관 '새천년, 우리의 미르'



○용이 새겨진 송광사 목조시방보배

설날을 앞두고 고미술품에 다채롭게 표현된 용의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는 용관련 전시회가 두 곳에서 열린다. 서울 호림박물관은 이번달 말까지 특별전 '용의 미학전'을 연다. 호림박물관 이전 개관 이후 첫 특별전인 이번 전시회는 용과 재왕·고려시대 용·불교 속의 용·조선 초기 도자기에 보이는 용·조선중기 혼돈기의 용·조선 후기 양반과 용·용과 민속 등 총 7개 주제로 나눠 전시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대표작인 작품들은 호림박물관 소장의 보물 1022호 청자삼강동채용문병을 비롯,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61호 청자비룡형주자, 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136호 용두보당 등 도자기와 금속공예, 목조공예, 문방용구, 고서 등 용과 관련된 고미술품 70여점이다. (02)858-2500

경기도박물관은 20일까지 '새천년, 우리의 미르'전을 연다. '미르'는 용을 지칭하는 순수한 우리말. 이 전시회는 12지(十二支)중 다섯번째 동물인 용의 상징성을 '불교에서의 미르', '민간신앙에서의 미르', '왕실에서의 미르', '생활 속의 미르', '경기도 땅 이름에서의 미르' 등 주제별 전시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에서의 미르 편에서는 용이 새겨진 통도사 목조시방삼보배, 송광사 금동요령, 법당 도리 위의 용두조각, 사찰 입구의 용두보당과 당간 장식, 기와에 새겨진 용문 등 불교 조형물 속에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모습을 통해 불법(佛法)을 수호자로서의 용을 만날 수 있다. 민간신앙에서의 미르에서는 무당들이 행하는 용왕굿, 가정신앙에서 사용되는 용단지, 세시풍속인 용궁맞이, 민속놀이인 용마놀이 등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우리 일상 속에 남아 있는 용을 살펴본다. 또 왕권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용의 이미지는 용안, 용위, 용상, 용좌, 용가, 곤룡포 등 왕실 문화 속에서 조망한다. (0331)285-2011

## 광주박물관에 불교미술실 개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광주·전남지방의 불교문화재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불교미술실이 개설됐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와 전남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방유물 불교관련 문화재와 사찰 자료를 모아 1월 25일 불교미술실을 열었다.

75평 규모의 불교미술실에는 광양시 율봉면 중흥산 폐사지출토 국보 제103호 쌍사자석등을 비롯,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출토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 화순 운주사 출토 금동보살입상,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도갑사출토 청동문수동자

상 등의 불교조각작품이 전시돼 있다. 또 출토지 미상의 아미타불화와 시왕도 등의 불교회화, 광주 서오층석탑출토 금동사리장엄구와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출토 청동법종 등의 불교공예품도 선보인다. 이밖에 광주 무등산 원효사, 광양 옥룡사지, 순천 금둔사지 등의 발굴유물 90여점을 주제별, 시대별로 전시해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불교미술실 개설을 통해 지역 관람객들에게 광주·전남지방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 문화소식

### '문학의 밤' 아이디어 공모

새로운 예술의 해 추진위원회는 문학분과의 첫 번째 사업인 '하이퍼 텍스트 문학의 밤'을 위한 작품 아이디어를 3월말까지 공모한다.

이 행사는 문학의 경험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문학을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하이퍼 텍스트를 도입한 작품을 가지고 있거나 구상중인 문학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02)3471-7192

### 아트선재 7인의 '느림'

산업화, 과학화, 현대화를 거치는 동안 발전과 진보의 다른 이름이 되어 온 '빠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제동을 거는 7인의 '느림'전이 3월 5일까지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단순히 '빠름'으로만 변질되어버린 속도의 개념을 재고해 보려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김수자, 김영진, 박흥현, 배병우, 육근자, 이불, 최정화 등 7인의 짧은 작가는 서로 다른 자신들의 고유한 속도를 작품을 통해 구현한다. 액체 속을 유행하는 텍스트들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며 시간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작품, 새벽이 밝아오는 실제시간을 영상에 담아낸 작품, 사이버보그의 이미지를 통해 빠른 이미지를 역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 등에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빠른 것에 대한 잘못된 가치를 꼬집고 있다. (02)733-8945

### 공연예술 아카데미

웃는돌 공연예술센터는 3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공연예술아카데미를 연다. '노자와 공연예술', '공연예술의 서사적 구조와 기능', '성악을 위한 음성론적·방법론', '사머니즘과 공연예술의 강' 등으로 진행되는

## 설공연 '풍성'

문화재 보호재단

국립민속박물관

남산골 한옥마을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립 공연장에서 다채로운 전통 예술 및 민속놀이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국악원은 '설날맞이 공연-미르 해의 새울림'을 5일 오후 5시 국악원 예악당과 축제마당에서 연다. 양금, 단소연주 '수룡음', 공중무용 '학·연화대·처용무', 판소리 심청가 중 '용궁에 간 심청은 무엇이었을까', 창작풍물 '용비소리' 등을 선보인다. (02)580-33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설날맞이 특별무대 '천년의 희망을 품

는 용의 설날'을 5~6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민속극장 풍류와 전통공연관에서 갖는다. 민속극장 풍류에서는 5일 신년재수굿 보유자인 김유갑 등이 출연, '신년재수굿'을 공연하고, 6일에는 한국의 정 민족예술단이 나와 시나위, 봉산탈춤, 판소리, 사물놀이 등으로 흥겨운 마당을 꾸밀 예정이다. (02)566-5951.

국립민속박물관은 '새 희망 설 문화축제'를 연다. 4~6일 우리관 앞마당에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웃찾보기가, 5~6일 우리관 장승동산에서는 새해 소망을 적은 소지를 글씨에 끼워 소원을 비는 소지끼우기가 열린다. (02)734-1341.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4일 '새 천년 새 봄왔네, 어화동동만시행동'이, 5일과 6일에는 '남산골 설날 큰잔치'가 각각 마련된다. (02)2266-6937.

## 내 마음 속의 부처를 찾는 길

# 좌선수행법

靜坐要訣 / 六妙法門 / 童蒙止觀 / 四念處

선(禪)과 교(敎)를 아우른 천태지의 대사의 지관좌선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법문 네 가지.

### 정좌요결

명나라 말기의 사대부 원황(袁黃)이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 체득한 지관수행법을 자세하고 명쾌하게 서술한 글

### 육묘법문

좌선수행을 근본불교의 수행법인 수(數)·수(隨)·지(止)·관(觀)·환(還)·정(淨)의 측면에서 설명한 수행지침서

### 동몽지관

좌선수행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입문에서 완성까지 10단계로 정리한 알기 쉬운 수행입문서

### 사념처

근본불교의 선정수행법인 사념처관을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 조명한 수행론

天台大師 · 袁黃 지음 남민수 옮김/신국판 356쪽/값 12,000원

불교시대사 서울 중로구 권운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전화 723-1673, 팩스 723-5961

## 일타 큰스님이 남긴 최후의 법문집

#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이 시대의 청정올사 일타 큰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법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와 계가불자에게 보내는 일타 큰스님의 해탈과 행복의 메시지 108가지. 불교화집 <백유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강>, 아운 스님의 <자경문> 등 역대 조사(祖師)스님들의 금쪽같은 법문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지를 간곡하게 들려주고 있다. 스님의 체험과 인연담을 곁들여가며 때로는 따듯하게 경책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힘을 북돋아주는 스님의 법문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버이 같은 따뜻한 정이 묻어 있다.

일원학연구원 역음/신국판 344면/값 10,000원

불교시대사 서울 중로구 권운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전화 730-2500, 팩스 723-5961